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이사장

곧 광복절이다. 80년 전 광복은, 광복의 꿈과 이를 이루기 위한 선인들의 피나는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복의 꿈은 원상회복 이상이였다. 왕의 나라도 양반의 나라도 아닌, '민'이 주인인 자주적인 국가를 꿈꾸었다. 그렇다면 광복의 꿈은 이루어졌는가? 분단 현실과 오늘의 난제들이 우리의 좌표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 8일 성황리에 마친 '광복 80주년 기념 실학 학술대회'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되었다.

제1세션은 '조선학운동의 유산과 실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 광복을 향한 선인들의 학술문화운동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실학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지원 교수는 조선학운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학인들의 학문적 실천이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국가를 지향한 학술문화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20세기 전반기 조선학운동은 21세기 오늘날 과거의 학문과 사상을 호명하며 '민' 중심의 공공성을 모색할 때 유효한 역사적 경험으로 여전히 현재적이다"고 발표문을 끝맺었다.

조성환 교수는 "실학이 지향한 근대의 기획은 최근 들어 그 효력이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된 '지구적 위험'을 배경으

광복 80년과 실학, 그리고 공공성

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21세기 실학으로 홍대용의 지구학과 최한기의 기학을 주목했다. 홍대용은 인물군사상과 지구활동설을 주장하여 인간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 등을 논파했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지구를 개발 대상으로 삼았던 서구근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홍대용의 주장에서 찾은 것이다.

제2세션은 '국가 위기극복 담론으로서의 실학과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다. 조선 후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제도개혁론을 전개한 전통을 우리가 실학으로 관념하는데 그 제도개혁론의 주요 가치가 공(公)이었다. 최근 공공성 약화를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유형원의 공은 정치권력의 공정성과 도덕성의 차원에서 분배의 균형·균등의 의미로 쓰였다."

송양성 교수에 의하면 "공(公)은 민산의 균등화와 민생의 안정을 위한 인정(仁政)과 덕치의 근거"로 인식되었다. "공에 입각한 경장론은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유형원의 공은 정치권력의 공정성과 도덕성의 차원에서 분배의 균형·균등의 의미로 쓰였다."

'반계수록'과 '경세유표'는 대표적 실학자의 새로운 국가 기획이었는데 양자는 차이가 있었다. 정호훈 교수에 의하면 '반계수록'은 공전제의 이상을 최대한 관철하려 했던 데 비해 '경세유표'에서는 공전과 사전을 1대8의 비율로 구성한 토지제도를 제시하여 공과 사의 균형을 도모했다.

백민정 교수는 다산을 포함해서 성리학자들이 공(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치우치고 기술어짐이 없으며 과불급이 없는 중(中)의 상태로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성리학자들은 공과 사를 심성론의 도심과 인심과 연결하여 이해했다. 다산은 경세유표에서 권력의 균형과 공정한 운영을 고심했다. 백 교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치적 중도주의에 관심을 표명했다.

제3세션 라운드테이블의 발제를 맡은 강동호 소장은 '피크 코리아'가 표현하듯 우리 사회의 여러 위기적 징후를 지적했다. 문제의 근원으로 시장자유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극단주의의 부상을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공화민주주의를 제시하며 공공선(公共善)과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소략하게나마 복기해보았다. 참관자로서 두 가지만 덧붙여보면 첫째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이다. 실학의 경세론은 다분히 국가중심적 접근 방식이다. 국가제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 시민교육과 언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과 혐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책임한 유튜브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는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격언이다. 이지원 교수가 발표에서 사용한 것으로, 동일한 '조선학'이란 용어가 일제의 동화주의와 친일적 문화주의의 맥락에서도 사용된 점을 비유한 것이다. 이 격언은 백민정 교수가 음양론을 설명할 때 다시 떠올랐다. 음과 양처럼 대립하는 요소가 짝을 이룬 개념을 둘러싸고 공존과 상호보완의 논리가 나오기도 하고,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만열 교수는 "민족분단과 외세의 압박,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선학들이 터득한 '실학적 지혜'로 새롭게 극복해가는 학인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성원들의 공공의식과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社說

위기의 석화·철강...구조조정과 정부지원 병행을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위기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은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백작간두에 놓여 있다.

여천NCC는 지난 8일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오는 21일까지 차입금 31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 5년 전만해도 매출 5조원 이상에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기업이 최근 3년 연속 매년 2000~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공동 주주인 한화화과 DL(옛 대림)이 1000억원씩 추가 출자를 했지만 밀빠진 독에 불붓기라고 판단한 DL측이 추가 출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

비단 여천NCC만의 문제가 아니다. LG화학은 여수 공장의 스티렌모노머(SM) 생산라인과 나주공장 알코올 생산을 중단했고 롯데케미칼도 여수산단 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멈췄다. 석화업종의 위기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 원인이다. 국내 석유화학은 나프타를 분해해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구조인데 중국과 중동 기업의 대규모 증설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여수산단 석화 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년 사이 9000명이던 석화업종 일용직 근로자는 6000명으로 줄었고 여수시 법인세 수입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김지훈 대표파트너는 이런 상황이라면 3년후에는 석화기업의 절반이 무너지고 2·3차 벤더사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광양의 주력 산업인 철강도 침체돼 수출·고용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고 광양시의 지방세 수입도 24% 줄어들었다. 석화와 철강은 전남 동부권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으로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석화업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K조선이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과 전환경·고부가 선박으로 환골탈태해 살아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화와 철강은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남의 주력 산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정부가 나서 전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 전남...인센티브로 인력수급 강화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남지역 3개 시군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를 시군 보건소에 배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남 4개 시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진도를 제외한 해남·신안·영암 등 3개 자치단체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열악한 전남의 의료 서비스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시군들은 시니어 의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강원, 경남 등 다른 농어촌 지역에선 시니어 의사를 구했는데 있다. 농어촌이란 조건은 같지만 전남 시군에

서 근무하길 원하는 시니어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전남의 의료인 인력풀과 교통 여건 등 인프라가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의료인 공모 사업에서 전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공심약국 지원사업 등 의사와 약사를 유치하기 위한 여타의 사업에서도 전남 지자체는 번번히 실패를 맞았다. 시니어 의사 공모사업 실패를 지켜본 전남지역 다른 지자체들이 내년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전남처럼 의료 인프라가 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 고



최홍길
서울 선정교 교사

유럽의 소네트, 중국의 한시, 일본의 하이쿠, 대한민국의 시조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의 시가(詩歌) 문학 양식이다. 고려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창작되고 있는 시조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이 작품 속에 내재돼 있는데 특히 조선후기의 사설시조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시조를 조상들이 창작한 결과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거의 없는 듯해 마냥 슬프다. 자수에 너무 열매인다는 지적도 있으나 심오한 사상이나 치열한 현실을 수용해 내기에 예술적 감흥이 풍기어 아치가 넘치는 양질의 작품이 현대시조에도 부지 기수이다.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시조 작품이 등장한다. 최근에 창작된 작품이 실리지 않아 아쉽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장르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한다고 이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뒤에 수업에 들어간다.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학습활동이 끝난 뒤에는 따로 1시간을 할애하여 시조를 지어보라고 학습지를 나눠

예향에서부터 시조(時調)에 대한 관심을

준다.

그 후에 시조의 길이에 따른 종류,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은 작품 등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곁들인다. 이어서 시조는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음수율에 맞게 잘 정리한 것이기에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해지며 인생의 흥미를 알게 해준다는 점도 들려준다.

하지만 학생들은 힘들어한다. 여태까지 9년 이상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시조 창작은 거의 해보지 않아 서릴까? 종장 전구의 자수를 3, 6으로 해도 되는지, 주제의식을 종장에 담아내야 하는지, 종장이 길어지는 사실시조를 만들어도 되는지, 제목을 뽑아야 하는지 등등의 잡다한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50분이 지나자 수업이 끝났다는 음악이 흘러나와도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앉아 학생들의 작품을 훑어보다가 30여 명 가운데 서너 정도 입이 벌어질 만큼의 결작이 나오기에 그래도 느낀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마다 하이쿠를 공모해 우수작은 시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의 안내판에 그 작품 내용을 소개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조를 공모·시상·게시했다는 기사를 아예 읽은 적이 없다. 하이쿠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창작하는 숫자 또한 많지만 우리의 시조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에서 시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기회에 예향인 우리 고장에서부터 시조를 널리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각 고장의 대표 관광지에 시조비를 만들고 연말에는 우수작을 모아 시조전을 발간하며 시조 낭송까지 결들인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필자의 고향은 여인송·무한의 다리·백길과 분계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자은도이다. 분계 해수욕장의 백사장 뒤편으로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길에 조성되었는데 수백 그루의 소나무 중에서 여인이하늘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있는 나무 하나가 바로 여인송(女人松)이다.

고기잡이를 하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무사귀환을 빌던 부인은 해변에서 가장 큰 소나무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다 어느 추운 겨울 얼어 죽고 말았는데 돌아온 남편이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 그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자 나무는 거꾸로 선 여인의 자태를 닮은 여인송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오늘도 관광객들은 여인송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사람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최근 필자는 시조 습작을 하다가 숙고 끝에 작품 한 편을 탈고했는데 여기에 소개한다. 두 수로 된 연시조이고 제목은 '여인송 술잔새'이다.

수저 둘 얹어 놓고 깨를 부는 신접살림/ 어부 낭군 기다리던 갯바윗굴 그 여인은/ 파리를 거꾸로 틀고 소나무가 되었다// 오가는 처녀총각 그 여인송 끌어안고 / 손가락 그리 걸며 백년가약 다짐한다/ 손자랑 이마에 엮자 술잔새가 지저귄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광주의 해법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교육이 먼저 움직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의 실제 일과 잇기 위해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열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학생이 교실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졸업 이후의 길을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여기서 배웠으니 여기서 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노력에 지역이 힘을 보탠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해 해외 산업현장 탐방을 함께 열고 기업들이 학교와 더 촘촘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경험을 나누고 학생은 방학하고 학기 사이에 지역 공장과 연구실,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직업의 얼굴을 직접 만난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산업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다. 교육을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의 과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거창하지 않다. 배운 것을 일로, 일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일상적 통로가 많아지면 된다. 학생이 동네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첫 채용 기회를 얻고 첫 월세를 내며 살림을 꾸리는 과정이 도시 곳곳에서 반복되면 된다. 행정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고 기업은 실습생을 임시 인력이 아닌 미래 동료로 대하며 학교는 저녁의

실습실을 지역에 열어 세대가 섞여 배우게 하면 된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고 실패한 시도에도 다시 기회를 내주면 선순환은 더 빨라진다.

사람이 남는 도시의 얼굴은 거창하지 않다. 저녁이면 골목마다 불이 켜지고 동네 서점과 도서관 창문에 학생 작품과 채용 안내가 나란히 붙는다. 시장 상인은 학생들의 첫 결과물을 믿고 한 번 써 보고 시내버스 시간표는 실습과 수업에 맞춰 촘촘히 이어진다. 동네 장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제자를 만나 기술을 전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의 원스톱 창구는 복잡한 서류를 한 장으로 줄인다. 이런 장면이 쌓일수록 머무름은 생활이 된다.

광주는 이름부터 '빛고을'이다. 교육이 불씨를 지피고 지역이 바람을 더하면 작은 불빛은 금세 등불이 된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닦아 놓은 길 위에 지역 산업계와 시민이 한 걸음씩 보태면 '떠나는 광주'는 '머무는 광주'로 바뀐다. 오늘 한 명의 학생이 지역에서 첫 경력을 시작하고, 내일 한 곳의 회사가 첫 기회를 내주며, 모래 한 가정이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광주는 다시 빛난다. 교육이 길을 열고, 지역이 그 길을 넓히고,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으면 된다. 그러면 광주는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빛과 품격을 갖춘 글로벌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힘들 땀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참아요 / 이편대 일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참아요 / 육하고 때리면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참아요 / 식당에서 밥 나오는 순서가 조금만 늦어도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 무엇 하나 참지 않는 이 땅에서 / 그 좋은 권리와 풍요와 안락을 위해 거칠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주노동자 에스라는 오늘도 / 그냥 참아요.”

‘박해받는 노동자(勞)의 해방(解)’을 줄여 필명으로 삼은 박노해 시인의 ‘그냥 참아요’는 2022년 발간된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집에

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사라졌다. 이리다보니 인권 침해·임금체불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폭증했다. 2022년 2727건이던 광주지방노동청 외국인노동자 관련 신고 건수는 2024년 4217건으로 급증했다.

벽돌터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며 고통함을 당한 사례 외에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가.

꿈을 찾아 낯선 한국으로 왔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잇따른다. 고흥 새우양식장에서 수중 모터 수리를 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10일 갑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월에는 네발 이주노동자가 농장주에게 6개월에 걸쳐 고통함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 함께 살아야 할 나라 아닙니까 / 대한민국은 사람이 희망인 나라 아닙니까 / 여기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 …/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박노해는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에서 말한다. 그들도 사람이라고.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기 고



김경훈
광주교육시민 앰버서더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글로벌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 8월 초 지역 언론이 전한 문장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손잡고 해외 산업현장을 찾고 기업 간담회와 공장 견학, 대학 교류가 이어진다고 했다. 구호보다 움직임이 앞선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광주는 숫자 앞에서 멈칫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가 140만명 선 아래(139만 9880명)로 내려앉았고 특히 청년의 순유출이 크다. 인구는 단지 통계가 아니다. 사람이 줄면 교실은 비고 가계의 불이 일찍 꺼지거나 아예 달고 버스 노선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반대로 사람이 머물면 학교와 상점과 공장이 함께 살아난다. 아이가 자라서 지역에서 첫 월급을 받는 순간 도시의 심장은 다시 크게 똬다. 그래서 인구는 중요하다. 생활의 온도와 지역의 자존, 다음 세대의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